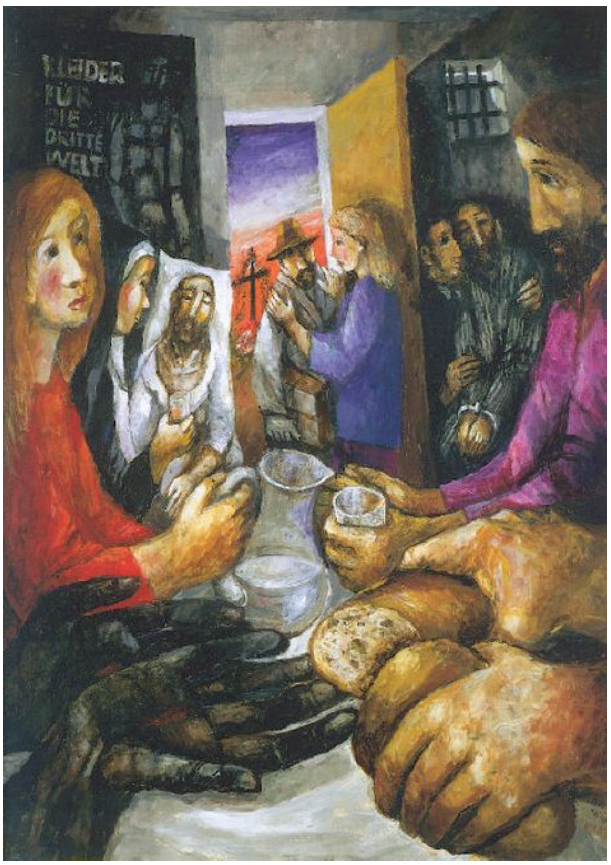
하상주보

2020년 11월 22일 (가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제1826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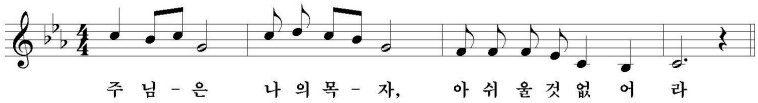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거 쾨더, 독일

[제1독서] …… 에제 34,11-12.15-17

[화답송] …… 시편 23(22),1-2ㄱ.2ㄴ-3.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1코린 15,20-26.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음] …… 마태 25,31-46

성화 해설 이 작품은 이웃에게 베푼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표현주의 기법으로 표현했다(마태 25,31-46 참조). 작가는 굶주린 사람에게 빵을,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는 장면을 그렸다.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을 그렸다. 이웃에게 베푼 사랑이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과 똑같으며,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1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3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33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36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37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38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39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40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41 그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43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44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45 그때에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
46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복음 묵상

우리는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최후 심판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의 아들"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창조와 함께 시작된 하느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이들은 영원한 불 속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기준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의 수난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의 내용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오 복음의 전체적인 구도와도 잘 어울립니다. 마태오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하신 산상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요약합니다(5-7장 참조). 그리고 산상 설교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며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7,24 참조).

최후 심판에서 강조되는 것 또한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장 작은 이들에게 말씀을 실행하였는지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지 아닌지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가르침을 실행에 옮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신자들과 '함께' 하는 목자로 살고 싶은
제9대 주임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

"여러분들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김태진(베네딕토) 신부는 '함께'라는 말을 좋아한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이 곳에 있는 동안 신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살아갈 작정이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올 해 초반에 이 곳 성 정 바오로 성당으로 부임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지난 8월 중순경에 원주교구 인사명령을 받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교구 인사 명령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던 본당을 9월 1일자로 떠나서 교구 공동사제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비자를 발급받고 이곳으로 급히 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하루에 50여 명이 나왔는데, 이곳 미국은 7만여 명 정도이며, 버지니아는 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군종신부로 사목을 하면서 동티모르에 파병도 나가고,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 등 파병지 방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보다 솔직히 여기로 올 때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께서 보여 줄 땅으로 가라"는 하느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왔습니다.

가족 그리고 사제의 길

저는 6남매(3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맏형인 김영진(바르나바) 신부님도 사제의 길을 가고 있고, 바로 위 누님은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수도자로서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선교 중이십니다. 이번에 한국을 떠나기 전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올해 88세이신데 치매가 좀 있으셔요. 그런 어머니께서 제가 이곳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머님 젊으셨을 때 사진을 직접 만드신 봉투에 넣어 제 손에 꼭 쥐어 주시며 '엄마 보고 싶을 때 보라'고 하시는데 참고 있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을 품어주시고 따뜻하셨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좀 엄하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막내가 신부되는 것을 너무 보고싶어 하셨는데 위암으로 투병하시다 부제품까지만 보시고 사제 서품식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보면 제가 사제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20년 동안 원주 풍수원 성당의 공소 회장으로 일하셨는데, 주말에 보고싶은 만화영화도 못보고 아버지 손에 끌려 공소에 갔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 가족사진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김태진 신부는 맏형인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윗줄 왼쪽에서 두번째)에 이어 사제의 길을 가고 있으며, 바로 위 누이인 김경진 막달레나 수녀(아랫줄 왼쪽에서 두번째)는 한국순교복자회 수도자로 베트남에서 선교 중이다.

최양업 신부의 5대손인 모친 최묘순 데레사(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 여사와 막내 외삼촌인 최기식 베네딕토 신부(오른쪽에서 세번째), 두 누님과 매형, 둘째 형님과 형수님이 한 자리에 모여 가족사진을 찍었다.

소박한 신앙인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어떤 사제로 살아야 하는지 거듭 되새기게 됩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

제 서품성구가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베드로 전서 4,7) 입니다.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 신부가 되었어요.**

사랑이 무어라고 생각하세요? 노래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함께 합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저 역시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늘 '함께 하는 목자'로 살고 싶어요.

이곳에 오기 전 본당에 있을 때 5학년 어린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은 꼭 동네 아저씨 같아요"라고. 왜냐고 물으니 "신부님은 어디를 가든지 계시니까요. 성당에 가면 성당에 계시고, 교육관에 가면 거기에 계시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계시니까 꼭 동네 아저씨 같대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라고 물으니 '신부님은 사제관에 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의 말이 참 고마웠어요. 사제관이 아니라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주님의 참사랑을 나누는 목자이고 싶거든요.

공동체 설립 35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곳에 온지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성 정바오로 성당이 정말 '분위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밖에서는 그 기쁨이 흘러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솔선수범하는 회장단들, 각자 성당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따라 열심히 임하고 있는 신자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활동, 신심단체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2월 1일이면 우리 본당이 알링턴 교구에서 정식 본당으로 설정된지 25주년, 공동체가 설립된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국땅,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서 고생하신 분들의 희생과 신앙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성장되어 온 것입니다.

얼마 전 위령성월을 맞아 Fairfax Memorial Park를 다녀왔어요. 성 정 바오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들이 이국 땅에 처음 오셔서 얼마나 힘든 역경을 견디며 사셨을까 생각하니 숙연해지더군요. 이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들, 신앙 공동체는 없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어렵게 가꿔온 가정, 신앙 공동체의 틀 안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적인 성장을 가져온 우리 공동체가 본당설정 25주년을 맞으면서 외적으로 하나되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역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적 사랑은 이웃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하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사랑을 드러내며 한 민족으로서의 신앙공동체를 빛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20년 동안 군종신부로 살아서** 목례보다 거수경례가 더 편할 때가 있다는 김태진 신부. 아프가니스탄 지도 방문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 줄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공동체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씀 중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을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 주십시오"**(로마서 12,15).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18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 줄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라고 하지요? 머리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가슴에 품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학교, 교회나 회사나 그곳이 어디든 우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예수님 사랑의 바이러스를 함께 전파시키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상주보©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정치권력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다. 스스로 낮추심으로써 높아지신 것이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였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올해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며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11월 29일(일) 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교회의 새해가 시작되며, 전례력은 '나해'를 따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VENTS

Day of Recollection for Men Discerners

SATURDAY, DEC. 12, 2020 / Ages 18 - 35

Spend the day with priests and seminarians from the diocese and other young men discerning their vocation. **Pray together, learn more about vocational discernment** and the life of priests and religious, and have some time with Our Lord as we prepare for His birth.

Deadline to register: **FRIDAY, DEC. 4**
https://www.arlingtondiocese.org/day-of-recollection-for-discerners/

Held annually a Saturday before Christmas, the day includes **Mass, Holy Hour, talks and meditations, and opportunities for confession and spiritual direction**. Arlington seminarians and priests are present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answer your questions.

Day of Recollection for Women Discerners

SUNDAY, DEC. 13, 2020 / Ages 18 - 35

This year's event will be held at the Monastery of the Poor Clares in Alexandria, where you will get a special inside view of the sisters' lives. We will also share times of prayer with the community, learn more about the cloistered life, and have some quiet time with Our Lord before Christmas.

Deadline to register: **FRIDAY, DEC. 4**
https://www.arlingtondiocese.org/day-of-recollection-women/

Held annually a Sunday before Christmas, the day includes **Mass, Holy Hour, talks and meditations, and opportunities for confession and spiritual direction**. Religious sisters are always present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answer your questions.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 100명)**

2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매일미사 책 주문

- 금액 : 1년분 $65
- 문의 : 성물부 회장 **조로사** (703) 608-7191

7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8 St. Lucy Project Food Drive (11/22-12/6)

- **Donation Items:** Canned Vegetables, Canned Fruit, Boxed Stuffing, Boxed Mashed Potatoes (dried), Pasta & Pasta Sauce
- **Drop Off:** at the collection box in the Parish Hall between **11/22-12/6**
- **Drive Thru Drop Off:** **Saturday, December 5, 1pm-4pm** in front of the **Hasang Building**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34주 주간: 에제 40-44**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1월 15일(연중 제33주일)

주일헌금	$3,364.00
교무금	$16,1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1,850.00
감사헌금	$320.00
합계	**$21,694.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11월 25일(수) 오전 6:15-6:45 | 11월 28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강의 **'키브롯 타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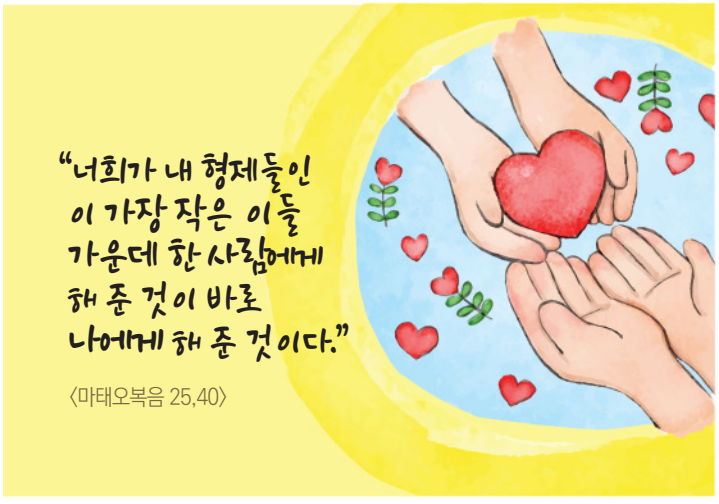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11월 26일(목) 오후 5:00-6:00
11월 27일(금) 저녁 8:00-9:00
11월 29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오늘 다시 주님께 - **대림 1주의 전례력과 신앙생활**
2.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 **하우현 성당**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석성현(요한) 신경내과 MD
두통, 치매, 파키슨, Stroke, 손떨림
Vienna, Tysons Corner 근처
703-828-3373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CHA GROUP
앤디차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 회계업무
www.GroupCha.com
703-678-8848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5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암)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클로이 양 부동산
Giant Realty Inc.
다운사이징 / First time home buyer
양윤정(카타리나)
703-865-1026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라)
703-732-3836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05:00 P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수요일	11:00 A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강두영 (암브로시오)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